

이름 허도영**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일본 오사카 가쿠인 대학교(大阪学院大学)
파견기간	2011.9.4 ~ 2012.05.30
귀국여부	네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오전수업(3반 아라시를 좋아하시는 유키선생님) : 순천향에서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JLPT N2이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가시면 4반 아니면 5반에 배정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4반에 배정되었는데요, 저는 전공이 일어도 아니고 N2 시험 이후로는 아예 공부를 안해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3반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서 보면 가끔 1반이나 2반에 배정된 다른 국가의 친구들이 왜 자기가 이 반에 배정됐는지 모르겠다고 항의 하거나 툴툴대거나 하는데요, 꼭 5반이라고 해서 레벨이 제일 높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타일, 수준에 맞게 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유키선생님은 웃으시는 얼굴로 과제를 많이 내주시는 귀여우신 선생님이세요. 3반과 4반이 과제가 많은 데요, 두 반 다 경험해본 바로는 3반이 좀 더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과제 들이 다 나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답니다. 공부하려고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할 땐 공부해야죠? 유키선생님 반에서 수업 할 때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문법, 10:10부터 11:10까지는 요일마다 달랐는데요, 청해,작문,회화 등 돌아가면서 수업을 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로 매주 수요일 1교시는 한자수업으로 그것도 레벨테스트로 다시 분반 되는데요, 한국인 학생들은 읽기는 되나 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3반이나 4반에 배정됐었어요. <p>오후선택수업(Japanese Pop Culture 박도영선생님) : 이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제도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인데요, 일본 애니, 만화, 오타쿠 문화, K-pop J-pop 비교 등 전반적인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박선생님은 학창시절 숙제를 싫어하셨던 분이셔서 숙제는 전혀 없답니다. 중간, 기말뿐인데요. 중간고사는 자기가 발표하고 싶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서 5분 개인 ppt발표로 진행됐구요, 기말은 중간 때 발표한 것을 좀 더 보충해서 레포트 형식으로 10장. 물론 발표든 레포트든 다 영어로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수업 끝나고 한국말로 물어보셔도 된답니다. 물론 일어도 가능하구요.</p> <p>오후학부수업(ECS(중급) Theo Steckler) : 학부수업은 의무인 오전 유학생 수업을 빼면 오후에만 들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유학생</p>

	<p>오후수업 선택하고 나면 학부수업을 들을 수 있는 범위는 더 줄어들게 돼요. 저는 선택수업들을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수업을 하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친구들이 재밌는 수업이라고 추천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선생님도 정말 재밌으시고, 교재도 딱히 살 필요 없고, 같이 수업을 들은 일본 친구들도 20명 이내에 적극적으로 하려는 친구들이어서 금방 친해져서 일주일에 두 번인 수업이 항상 기다려지고 가면 정말 많이 웃고, 배우고 왔는데요, 다른 수업들은 친구들은 문화충격을 받고 온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들은 수업은 저같이 영어수업이 아니라 금융론같이 전공과 관련된 수업이었는데요, 수업시간에 야키소바나 라면을 먹는다면, 스피커를 그냥 켜 채로 노래를 듣는다면. 저도 얘기 듣고 놀라긴 했지만, 학부 수업을 들으실 거라면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영어 수업을 들으시면 이게 대학생 수업인가? 하고 생각하실 정도로 쉬운 표현을 공부하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이걸 다음 봄학기 되면 더 레벨이 낮아지는데요, 선생님과 상담해서 시간대가 맞다면 좀 더 레벨이 높은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출석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따라서 사정 말하고 결석해도 상관 없는 수업이 있는가 하면 아닌 수업도 있어요. 그리고 가면 수업에 잘 안 나오는 애들도 있구요, 시험인데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열심히 수업 참여하시면 보람차실 거예요.</p>
<p>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p>	<p>오전수업(4반 팬더를 좋아하시는 후쿠이 선생님) : 처음에 후쿠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있으면 눈을 깜빡이는 것을 깜빡할 정도였는데요, 후쿠이 선생님의 말하는 속도는 5개반 선생님들 중에 가장 빠르십니다. 후쿠이 선생님 반에서 했던 것은 문법, 경어, 발음, 억양 숙제발표였는데요, 저는 다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특히 경어가 면접, 전화문의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수업시간에 궁금 한 것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질문하세요. '센세!'이렇게요.^^ 그리고 오전 수업은 출석, 지각, 무단결석 선생님들이 체크 안 하시는 듯 하시면서도 꼼꼼하게 하시니까 엄두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p> <p>오후선택수업(일본과 동아시아 관계, 박도영 선생님) : 이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 되는 수업인데요, 일본과 동아시아의 역사, 영토분쟁 등에 대해서 배우고 토론하기도 하는 수업이에요. 박선생님 수업이라 숙제는 없구요, 중간은 토론이었는데요, 한국인 학생들은 일본입장에서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기, 한국 외 국가 학생들은 한국입장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기말은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일어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레포트였는데요, 분량은 정해주시지 않았었어요.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일본이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지, 속지 않으려면 어떤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p>

	<p>어요.</p> <p>오후선택수업(영화청해, 마스다 선생님)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면서 대화문을 받아 적으면서 각 장면에 숨어 있는 의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의도, 어떤 장면의 어떤 그림은 어떤 시대의 무엇을 참고해서 그렸나 등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2번 봤는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보니까 또 새롭고 재밌더라구요. 대신, 3분 정도의 씬을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90분 수업 내에 전부 다 보겠다는 욕심은 버리시구요, 수업 전에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p>등록비 외에 따로 지출한 사항은 행사나 체험학습 때 참가비 정도? 비어가든이라고 학기 시작했을 때 한번 그리고 1년 과정 끝날 때 한번 갔었는데요, 여자는 2700엔 정도고 남자가 3000엔? 내고 음식, 음료 무한대로 먹는 곳이에요.</p> <p>딱히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학교에 지출한 비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p>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홈스테이(澤さん) - 한큐 센리야마 역에서 도보 15~20분
숙소비용	한 달 5만엔
숙소평가	<p>사와상이 홈스테이를 하신 경력이 오래 되어서 서로간에 문제가 생겼던 적은 전혀 없었어요. 홈스테이 비용에 아침 저녁 포함이라고 아침과 저녁은 항상 맛있게 먹었구요, 점심은 주로 학교에서 먹었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밖에 나가던지 가끔은 홈스테이 엄마 장보러 가는 거 따라가기도 했었어요.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면 책상과 의자인데요, 항상 바퀴 달린 의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공부하려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더라구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적응 되었어요. 모든 홈스테이가 그런 건 아니구요, 홈스테이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저처럼 바닥에서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한국처럼 의자에 앉아서 하는 집도 있어요. 제 방은 2층에 있었고 화장실은 2층에 있는 화장실 저 혼자 사용했고요, 욕실은 1층에서 사용했어요. 제가 샤워하는 시간은 9반에서 10시사이었는데요, 가끔 너무 피곤하면 저녁먹고 8시정도에 먼저 샤워하기도 했었어요. 학기 지내다 보면 홈스테이 가정이란 문제 생겨서 나오거나 쫓겨나거나(?) 하기도 하는데요, 홈스테이 하신분들의 경력이랑 묵고 있는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 같아요. 나중에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때 주의사항도 들으시겠지만 문 잠그는 것,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갈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기 기본 적인 것 잘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 밥이 더</p>

	맛있어서 주로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확실히 저녁 먹을 때 대화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호텔에 묵는 것이 아니라 홈스테이니까 가족처럼 얘기도 많이 하고 가끔 친구도 초대하고, 한국 요리도 만들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학기 중엔 학교 식당이나 편의점 학교안 빵집을 주로 이용하고 학부생들은 방학이고 유학생들만 나오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때는 근처 마트나 도시락 집에서 사먹었어요.
식사비용	학교 식당에서 유학생 할인 받았을 때 제일 싼 메뉴(서비스 정식)가 250엔이었나? 저건 정말 싼 편이고요, 보통은 390엔이나 400엔정도였어요. 도시락집의 도시락이 한국처럼 싼 게 아니라서 가장 싼 메뉴가 390정도고 비싼 집은 또 비싸요.
식사평가	학교식당 밥 양은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몇 번 먹다 보면 짬뽕, 마요네즈맛, 간장맛 미소시루, 튀김류 등에 질리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빵집(야마자키 빵집), 학교근처마트(프렌드마트), 도시락집(호카호카, 톤동) 돌아가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학교에서 권장하는 보험으로 학기초에 비용을 걷어요. 저희는 1년과정이거나 9개월분 한번에 내셔도 되고요, 도중에 한국에 한번 다녀올 것 같다면 4개월분만 먼저 내시고 다음학기에 남은 분 내시면 돼요. 그리고 시약소나 구약소에게서 다른 보험 또 신청하는데요, 매달 1700~1900엔 정도 내요. 솔직히 병원 한 두 번 정도 밖에 안 가는데 매달 내는 저 돈이 아깝기는 했어요.
한달 생활비(대략)	<p>저는 따로 생활비를 계산 안 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홈스테이 비 한달 5만엔, 식사는 점심, 군것질까지 해서 대략 500~600엔. 그 이외에 돈이 많이 빠지는 것은 휴대폰비(한달 약 4000~7000엔- 이거 비싼편이에요.), 보험료(1700~1900 - 귀찮으면 한번에 계산 가능해요), 교통비(통학정기권 한달 2750엔- 홈스테이 집이 학교랑9개정거장이라서)</p> <p>제가 정기권 구간이 많다고는 해도 나가는 장소가 난바나, 우메다쪽이면 교통비 따로 내는데요, 일본은 정말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한번 나갈 때 살 목록 다 적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바같은 경우에는 편도에 약400엔 우메다는 약220엔정도거든요. 또 지하철, JR, 한큐 각 전철에 따라서 구간 요금이 다르니까 사전에 어떤 구간으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싼지 계산해서 가시면 도움이 돼요. 예를들면 학교에서 오사카나 우메다를 가는데 한큐로 가면 180엔이지만 JR로 가면 시간도 더 적게 걸리고 170엔. 이 경우는 10엔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더 많이 차이 나는 구간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p> <p>저는 주로 군것질 거리에 돈을 자주 쓰긴 했어도 옷이나 신발 등에 비하면 싸니까 큰 타격은 없었고요, 저는 주로 크게, 정기적으로 돈을</p>

지출 했던 부분은 교통비, 핸드폰 비였던 것 같아요.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 **오픈티켓 끊기** : 저는 해외로 나가는 게 일본이 처음이어서요, 모든 게 다 새롭고 뭐가 뭔지 몰랐어요. 티켓을 끊을 때도 '1년이나 있다가 올 건데 어떻게 왕복을 끊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티켓이 있더라구요. 오픈티켓 하시면 나중에 한국 돌아오실 때 비행기편 알아보는데 큰 번거로움은 없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 **프리페이드폰** : 저는 au핸드폰을 사용했는데요, 공짜폰 사용하는데 한달 요금을 4000~7000엔 정도 냈어요. 그리고 핸드폰 만드는데도 무슨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핸드폰 팔기도 하는데 나중에 해약할 때 복잡하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냥 매장에서 싼 플랜 찾아서 샀는데요, 같은 au라도 지점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도 해서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핸드폰을 만드는데 도대체 왜 3,4시간에 걸리는 건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해약은 그나마 1시간 반? 일본은 통화료도 비싸서 몇 명끼리는 무제한 같은 플랜 아니면 오래 통화 못해요. 부재중이라는 메시지만 들어도 10엔 부과되고요, 타이 친구 중에 한달 핸드폰 요금으로 5만엔 정도 낸 친구도 봤어요. 근데 프리페이드폰 쓰는 친구들 보면 해약에 문제도 없고 한달 요금도 제가 낸 요금의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짜폰 쓰는데 한달 요금으로 7000엔 정도 낼 바엔 차라리 스마트폰, 절약한다면 프리페이드, 아니면 아예 핸드폰 안 만든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안 가지고 있는 본인보다 주위 친구들이 더 속이 터져요.^^;

- **여행책자** : 오사카만 말고 나라, 교토, 고베까지 포함 된 책자로 사가시면 나중에 여행할 때 교통편도 편리하고 나중에 기억하기에도 좋아요.

- **그 외 준비할 사항** : **인감**(가서 사셔도 되는데 한국에서 나무도장 파서 가시는 게 편하고 저렴해요), **변압기**?(전압이 다르니까 110V로 바꿔주는 콘센트라고 해야 하나, 보통 돼지코라고 부르시던데, 저는 공항에서 1원정도 주고 세트로 샀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고물상에서 몇 백원 주고 여러 개 사시는 게 더 실용적이실 것 같아요.) **시티은행계좌**(수수료가 제일 싸다고하죠? 일본에 가서 다른 은행 계좌를 또 만든다고는 해도 한국에서 돈 받아서 쓸 때는 저는 이 계좌로만 받아서 사용했어요.) **전기장판**(일본 겨울은 정말 정말 정말 추워요. 밖이 추운 게 아니라 실내가 정말 추워요. 저는 일본에 가서 장판 싸게 사서 그곳에 있는 한국인에게 팔고 왔는데요, 일본은 장판이 아니라 카펫나 담요의 개념이라서 한국 같은 장판이 없어요. 그리고 최대 온도로 해도 그렇게 까지 뜨거워지지 않아요. 일본에서 가격, 사이즈 비교해가면서 전기카펫을 사냐, 전기담요를 사냐 고민할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서 맘에 드는 용으로 사서 가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일어책**(일본은 책값도 비싼데요, 시사일본어사 책으로 공부하신 책 있으면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자 3반이었는데, 나중에 책 사고 보니 N2때 공부했던 책이랑 똑같더라고요, 책값이 비싸서 타이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 안 사고 타이완에 단체 주문해서 며칠 뒤에 책 받기도 했었어요.) **반팔**(오사카는 9월인데도 엄청 더웠어요. 한국친구들은 이제 가디건 입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안 입었던 민소매를 입고다녔어요. 9월이니까 금방 추워지겠지 하고 반팔 몇 개 안 챙겨갔는데 '정말 더워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웠어요.), **모기약연고**(일본모기들은 외국인들을 알아보는지 제 친구는 청바지 입었는데도 그걸 뚫고 물어더라고요. 저는 홈스테이 집에서 아침 밥 잠깐 먹는데, 일부러 모기 안 물리려고 긴 팔 긴 바지 입었는데도 얼굴, 목, 손목, 발목 순식간에 엄청 물렸어요. 웬만한 약은 듣지도 않는데요, 액체형 말고 연고타입

의 바르는 연고 있는데 사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겨울 실내용 옷, 신발(일본 겨울은 집이 정말 더 추워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털 복슬복슬한 잠옷세트, 유니클로에서 실내화를 구입했었어요. 그래도 추워서 붙이는 발팩, 핫팩 같은 것까지 동원해서 겨울을 보냈던 것 같아요. 히터를 틀어도 공기만 따뜻하지 바닥은 차니까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히터도 계속 틀면 살들이 갈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히터 때문에 한번도 없었던 안구건조까지 와서 병원까지 갔었어요.)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약 9개월간 동안의 경험을 적으려니까 할 말, 해줄 말이 정말 많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교환학생을 목적으로 JLPT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고 싶고 제 능력도 시험해 보고 싶어서 N3부터 시험을 치뤘어요. 제 전공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아교육이 왜 일어를 공부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저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나 일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전공이 교육이라고 해서 꼭 교육분야만 공부하라는 법도 없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는 주의라서 전공공부 하면서도 일어시험을 준비했었어요. 졸업 전에 교환학생은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그 보단 그저 배운 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틈틈이 공부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잉빌에 들어가서 일본인 룸메를 만나면서 하던 영어공부 잠시 멈추고 일어에 매진했는데요, 잉빌 수업도 일어수업으로 듣고 교양도 일본 관련된 교양을 들으면서 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교육학과다 보니까 에히메에도 지원이 가능해서 에히메를 염두해 두고 공부했었는데 이래저래 공부를 하다 보니 N3도 따고 N2도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히메 말고도 다른 곳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서 저는 고민 고민 끝에 오사카 가쿠인을 지원했어요. 한 학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 교환학생을 간다니 '시기가 좋지 않다.' '지진 난 지 얼마 안됐는데 괜찮을까.' 등 염려의 소리를 많이 들었고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너는 거기 뭐 하러 갔어?' 같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응원해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는데요, 자기 의지가 확고하면 그만큼 버티는 힘도 길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가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고 하면 부모님과의 문제였어요. 걱정이 심하신 분들이라서 컴퓨터에 온라인이 아니면 국제전화로 전화 거시기도 하고 학부수업 듣는다고 8월까지 더 있는다고 하시니까 노발대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제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지금 선생님이 돼있는데 저는 전공과 상관없는 일본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시간낭비'라고 혼내신 적도 있었어요. 그게 다 자식 걱정이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는 이곳 일본에 와서 너무 좋고, 일어를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이 나라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면 남들 보다 졸업이 늦어진다고 해도 나는 괜찮은데 왜 이해를 못해주실까, 내가 무슨 취업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전공 쪽으로 나가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쪽으로 가면 이제까지 공부한 언어가 아깝고 등의 고민을 하는 와중에 계속 다그치시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처럼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긴 한데요, 그래도 부모님께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이나 의지를 분명히 해두시면 막상 일본에 가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본에 가서의 생활면인데요, 가시면 일본의 시간 걸리는 일처리, '일본 남자들은 소

심해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할까말까 움찔거리기만 하면서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 한국학생이나 유학생무리가 지나가면 신기한 눈빛으로 훑어지게 쳐다보는 오사카 가쿠인 학부생들, 쳐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놓고 비웃거나 시비를 거는 일도 있어요. 화려한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의 학생들. 주로 학생들한테서 받은 스트레스가 크네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금발, 은발, 선글라스, 20cm 정도의 하이힐 등 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게 될 텐데요, 결코 모든 일본 학생들이 그런 옷차림으로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랍니다. 다른 학교도 방문해봤는데요, 약간 오사카 가쿠인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정말 착하고 친절하고 재밌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면으로도 앞과 같은 경우의 학생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위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렸지만 몇 가지 더 보탠다면 여행면인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일본에 놀러 왔을 때 여행을 다니는 게 경제적이고 좋아요. 간사이쓰루패스, 오사카 주유패스를 구입해서 돌아다니면 혜택도 많고 교통비도 정말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실 생각이라면 면접을 볼 때 유학생인데 지원 가능하냐고 사전 확인 하는 것도 좋아요. 막상 가서 유학생이라서 안된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언제까지 있는다고는 되도록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채용자의 입장에서 몇 개월 뒤에 가는 사람이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후자를 뽑는 건 당연하죠. 질문을 받는다면 그냥 비자연장해서 계속 있을 거라고 하시면 되요.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서 같은 것을 또 받으러 입국관리국에 가게 되는데요, 발급 받아도 일할 수 있는 거는 12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알바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허가서 같은 거 확인 안 하는 단기 알바 같은 것도 추천해요. 저는 놀러 가려고 골든 위크 때 몇 번 했었는데요, 면접 때 허가서 확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는 게 좋아요. 가면 확실히 한국사람과 중국사람들이 많은데요, 교환학생 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끼리만 다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1반이나 2반 친구들은 영어에 강하고 일어에는 약하다 보니까 학기초에는 손짓 발짓 그림까지 동원해서 대화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들의 일어실력도 엄청 발전하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천해요.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드린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싶네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유학생생활 열심히 하시면 얻으시는 것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1년 동안 값진 경험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